

친환경 입은 준대형차 경차 연비 안부럽네

그랜저·K7 하이브리드 연비 l 당 16.2km
그랜저 9월까지 1만7284대·K7 4610대 판매
'큰 차 + 유지비 절감' 장점에 판매 급증
수입차도 디젤 비중 줄이고 하이브리드 판매 집중



'K7 하이브리드'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기름값에도, 준대형차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름먹는 하마'로 취급받던 준대형차가 친환경차로 변신하면서 넉넉함에 정속성, 연비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연비 좋아진 그랜저·K7 하이브리드, '기름먹는 하마' 옛말=그랜저 하이브리드(IG)는 올 들어 9월까지 1만7284대가 팔렸다. 지난해 3월 출시된 뒤 한 해 동안 1만8076대가 팔렸고 올해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올들어 8만 3454대가 팔리며 국내 베스트셀링카 1위를 달리고 있다.
중형 세단인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올해 9월까지 2812대, 소형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2399대 팔리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와 내연기관 동력을 같이 활용하는 차다. 절반은 전기로, 절반은 기술력으로 달려 연비가 좋고 조용하다. 그랜저는 여기에 소형차와 구별되는 넉넉함까지 갖추며 대형 친환경 세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아차의 K7 하이브리드도 꾸준히 소비자들

의 눈길을 끌고 있는 차량으로 꼽힌다. K7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6280대, 올해 9월까지 4610대가 팔린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의 강자다.
K5 하이브리드의 올해 판매량(2127대)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랜저와 K7의 연비는 l 당 16.2km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정부보조금(50만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개소세 인하와 연말 할인 효과 등을 더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났다.
◇수입차도 준대형 하이브리드 판매=15일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 7386대로, 전년과 같은 기간 1만6494대가 팔린 것에 견줘 5.4%가 증가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한때 50%를 넘던 디젤차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중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인 'GLC 350 e 4MATIC'을 지난 4월 대표 하이브리드 모델로 선보이면서 올 5~7월 베스트셀링카에 오르기도 했다.
렉서스의 ES300h도 수입차 하이브리드의 강자로 꼽힌다. 2015년 5006대, 2016년 6112대, 지난해 7627대가 팔리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렉서스는 또 준대형 SUV인 RX450h, 중형 SUV인 NX300h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다.
도요타는 대표 모델인 캠리 하이브리드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823대가 팔리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지난해에만 400대가 팔리며 수입차 하이브리드카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렉서스 NX300h'



'메르세데스 벤츠 GLC 350 e 4MATIC'



'그랜저 하이브리드'

정상화 반년만에...한국GM 다시 격랑

노조 'R&D 신설 법인 반대'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 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는 이달 22일쯤 나올 전망이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달 15~16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측은) 19일 주주

총회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로 연구개발 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라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투쟁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한국GM은 이달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여성 청소년 돕기 위생 물품 지원 '핑크박스' 사업 참여

금호타이어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핑크박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핑크박스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금호타이어는 행사 참여를 통해 저소득가정의 10~19세 소녀를 대상으로 생리대, 바디용품, 파우치 등 사춘기 여학생들이 꼭 필요한 여성용품들을 지원했다.
'금호타이어는 핑크박스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희망의 공부방' 개설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외에 또 희망의 공부방 개설 후원 및 교육기부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